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새가족 전도를 위한  
**프레시온 전도학교**  
Plesion School of Evangelism  
2월 2일(주일)~23일(주일)  
매주 오후 2시~4시



미얀마 선교현장

##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은 땅, 미얀마·우간다

광림 청년부 <2020년 해외 단기선교> 1월 21일(화)~29일(수) 진행

**“잠시 방문한 우리를 평생 기억할 것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은 아이들과 보내는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했어요.”**

<2020년 청년부 해외 단기선교>가 지난 1월 21일(화)부터 29일(수)까지 미얀마와 우간다에서 진행되었다. 설 연휴를 이용하여 선교에 참여한 청년들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6박 7일의 각 선교일정을 마쳤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해외 100교회 건축>의 비전을 품고 매년 해외 단기선교를 통해 세계 곳곳에 55개의 교회를 세웠다. 이번 선교지인 불교국가 미얀마에도 3개의 교회를 봉헌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마을 전체가 태풍에 휩쓸려 생업과 예배처소를 잃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미얀마 주민들에게 ‘시영 교회’를 지어주어 큰 위로와 함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

미얀마, 고아원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 전해  
1월 21일(화)~27일(월), 이준영 전도사를 포함한 7명의 선교팀원들은 미얀마를 방문하

여 고아원 사역을 펼쳤다. 미얀마 현지 선교사를 도와 만달레이 지역의 아니스칸, 여호와이레, 아둘람 고아원과 양곤 지역 공부방에서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하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세상의 눈으로는 버림받은 아이이지만, 하나님의 눈엔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에게 청년들은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준비해 간 티셔츠를 아이들에게 입히고 이름을 크게 적어 붙여 한 번이라도 더 이름을 불러주려고 했다. 또 자신의 사진을 한 번도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 해맑게 미소 짓는 사진을 찍어 한 명 한 명에게 선물했다.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도중 잠이 들어 미처 사진을 찍지 못한 아이가 울고 있다는 연락에 ‘내일 가서 찍어주면 되겠지’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친 걸음을 돌려 사진을 찍어주고 오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었다고 한다. 정진호 청년은 “잠시 방문한 우리를 평생 기억할 것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은 아이들과 보내는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했어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기

역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 복음으로 다시 빛나길 ‘아프리카의 진주’라 불리는 우간다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지만, 오랜 내전으로 경제발전이 늦어져 1인당 GDP 770달러의 세계 최빈국이다. 40%의 높은 개신교 복음화율을 보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1월 23일(목)~29일(수), 최형순 전도사를 포함한 6명의 선교팀원들은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첫발을 내딛었다. 우간다는 케냐에 이어 두 번째 만나는 아프리카 선교지로, 이번 선교는 전도와 땅밋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팀원들은 현지선교사와 협력하여 이강가 지

역에서 전도집회를 갖고, 우간다 청년 2명과 한국 청년 1명이 조를 이뤄 거리전도와 가정방문전도를 벌였다. 우간다 청년들의 신앙과 전도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기도를 하는 우간다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는 광림의 청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다. 또 팀원들은 ‘나일강 땅밋기 기도’와 ‘TMA 론칭 행사’에도 참여했다. TMA(TRUE MERCY AFRICA)는 우간다 청년 선교단체로, NGO 등록을 위한 행사를 열었다. 여기에 합류한 광림 청년들은 무인극과 워십공연으로 함께하며 500명 이상 모인 이번 행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한영은 청년은 “4시간이 넘는 긴 예배시간에도 쉽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간다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전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 기도 속에 담겨진 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6:20~24)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라고 하시면서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과 보혜사 성령이 대신 올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큰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를 아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와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요 16:23)고 하시며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해줍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 용기를 줍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며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 첫째, 예수님은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23절)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한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기도의 원칙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러지고 잘못 구하기 때



요한복음 16:20~24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이 되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거나 인간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것들을 구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참담한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도의 논리나 방법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그 아픈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해주시리라” 이 한 마디가 제자들에게는 위

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그냥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 둘째, 예수님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헬라어로 ‘airéw’(아이테오)입니다. 이 말은 ‘가서 찾다’, ‘찾으려고 애쓰다’, ‘획득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간청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끊임없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

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개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8,810개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약속에는 변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끈질기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끈질긴 간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 셋째, 예수님은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로 돌아갑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다”고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인내를 가지고 매달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즉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 위로를 받고, 응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30

# <2020 프레시온 전도학교> 300명 등록

프레시온의 뜻은 '가까운 자', 이웃과 친구와 동료로 사랑하며 전도하는 것



2월 2일부터 4주간 매 주일 진행되는 <프레시온 전도학교>는 광림교회에서 개발한 관계전도 교육과정입니다. '프레시온'은 헬라어로 '가까운 자'를 말하며, 프레시온 전도학교는 이웃에게 진실한 친구, 동료가 되어 사랑을 주며 전도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전도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이해하고, 경건생활을 통해 개인의 영성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2020년도 프레시온 전도학교>에는 3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등록했으며, 앞으로 각 교구에서 전도 리더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혼을 사랑하고, 중보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8번의 강의와 실습이 이어지며, 교육 후 전 교구를 대상으로 8주간의 전도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실시될 유망겔리온 전도학교는 프레시온 전도학교의 후속 과정으로 복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공감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이 이어집니다. 전도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전도가 삶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광림의 권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 포토 뉴스



남선교회, 사랑의 쌀 전달

2월 2일 주일,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쌀 전달식이 광림사회봉사관 1층 통로에서 박기연 장로의 기도 후 진행되었다.



성가대 임명예배

1월 19일 주일 저녁예배에서 전 성가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가대임명예배가 있었다.



제33회 현대고등학교 졸업식 광림교회에서 2월 4일(화), 제33회 현대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김정석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무료영화 상영 <드롭박스>

1월 26일 주일, 영화 <드롭박스>가 장천아트홀에서 무료로 상영되었다.

## 담임목사 동정



- 1/26 찬양예배
- 2/2 여선교회 신년월례회
- 2/2 교사임명예배
- 2/4 현대고등학교 졸업식
- 2/8 한국로잔위원회 총회
- 2/9 남선교회 신년월례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 <광림외국인제자센터 설잔치> 함께 민속놀이 즐겨



<2020년 광림외국인제자센터 설잔치>가 1월 26일(주일)에 본당과 광림사회봉사관 컨벤션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평소에는 각 선교회별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날만큼은 다 함께 본당에 모여 동시통역(영어, 일어, 불어, 몽골어, 러시아어)으로 한국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는 광림사회봉사관 컨벤션홀에서 설잔치를 열고, 먼저 김정석 담임목사에게 외국인 어린이들이 세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3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세뱃돈을 주었고, 아이들은 기쁘게 받으며 즐거워했다.

여선교회에서는 이날 행사를 위해 점심식사를 마련했다. 외국인 성도 200여 명과 교역자, 장로, 남/여선교회 임원 등 300여 명이 떡국과 그 밖의 정성껏 마련된 음식을 나누었다. 식사 후에는 선교회별 단체게임으로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등 민속놀이를 즐겼고, 게임 중에는 중국선교회의 무용, 러시아선교회의 찬양, 에티오피아선교회 청년들의 율동으로 흥을 돋우었다. 마지막에는 김용태 성도의 사회로 경품추첨과 시상식을 마친 후 여선교회와 외국인 제자센터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외국인제자센터에서는 담임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와 후원, 각 기관 위원장들의 후원과 여선교회총연합회 임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했다.

이상용 장로(국내선교위원장)

# <2020 교사임명예배> 450명 교사들 한 자리에



지난 2월 2일 주일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2020년 교사임명예배>를 드렸다. 이날 믿음의 다음세대 양육에 헌신하는 총 450명(본당, 지성전 포함)이 2020년 광림교회 교사로 임명되었다. 광림교회 교육부에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

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영어예배부, 어와나, 중등부, 고등부, 광림씨디스콰이어, 광림어린이축구교실, 웨슬리문화센터가 있다. 이번 교사임명예배에서는 5년 근속교사 13명, 10년 근속교사 13명, 15년 근속자 16명,

20년 근속자 6명, 25년 근속자 1명, 30년 근속자 3명이 수상을 하였다. 또한 35년 이상 근속한 교사로 유년2부 박인수 교사와 고등1부 강태분 교사가 수상했다. 교회학교 김호영 목사는 "다음세대의 마음밭을 일구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세대의 열매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돌봄과 가르침에 달려 있습니다. 양육의 자리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때때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하고,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낙심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사랑이 풍성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박신애 기자 milkpsa123@naver.com

내 인생의 말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집이 아주 부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자랐고, 명문대를 졸업한 건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입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졸업했고, 결혼할 나이가 되어 믿음 좋고 자상한 신랑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큰 시련없이 교과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임신하고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출산 이후도 계속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둘째를 임신하고 하루하루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잠언서를 꺼내려가면서도 저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는 원망과 두려움에 태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름 힘든 과정을 거쳐 출산하고 키우면서 지금은 회복되었고, 둘째도 건강하고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강이 염려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운동도 시작하였고 식단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습관을 주시려고 잠깐의 시련을 주셨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건강검진 결과를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첫째에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엄마 그런 마음은 사탄마귀가 주는 마음이야!"라고 말하더군요. 갑자기 멍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구나.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두려워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저 어린 아이처럼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실 텐데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큰 사건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누가복음 11:13)



박지민 집사(유년부 교사)

生生  
생생 속회 (43회)  
16교구 6지구 속회

# 속회는 신앙 성숙의 통로 “가족 같은 사랑 나눠요”



강남구 개포동의 16교구 6지구는 다양한 연령대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 시행한 주소지 이동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의 교구 이동이 있었다. 따라서 속원들의 변화도 생겼는데 이곳도 그중 한곳이다. 4지구장의 타교구 이동으로 인해 6지구에 편입되어 첫 속회에 배를 드렸다.

**속회를 통해 받은 은혜** : 새롭게 편입되어 온 김은아 집사는 “15년 전 초신자였을 때, 만난 지구장님으로부터 예배와 말씀으로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 주셨어요. 저의 신앙에 좋은 멘토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며 다시 만난 지구장과의 인연을 말했다.

**속회로 인해 보람 있었던 일** : 지구장 유경일 권사는 “15년 전 아기엄마로 만난 김은아 집사가 속회로 3년간 함께한 이후, 다른 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보니 온 가족이 주일마다 교회 출석하며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속회에 연령대는 다르지만 서로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모습이 사랑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나에게 속회란?** : 황규순 권사는 “신앙이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는 통로이고 속원들 간의 친교로 서로 위안도 되며 하나님 안에서 가족 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다”라고 고백했다.

**속회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 : “주일예배를 통

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속회를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과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제 속에서 위로 받고 다시 한 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김광희 권사는 말했다.

**기억에 남는 간증?** : 최영진 권사는 “카톨릭 집안에 장손인 남편과 결혼하여 제사를 지내면서 추도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오랜 세월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제사를 없애고 추도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편이 평생 피워오던 담배를 후유증 없이 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속회에 바라는 점?** : 이향춘 권사는 “지금처럼 서로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읽기와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원했다.

30년동안 개포동에서 지구장으로 섬기며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속회를 인도하는 유경일 권사는 믿음 없이 광림 교인인 남편과 결혼해 10년간 남편을 핍박하며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나, 결혼 10년째 되던 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속원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한다.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 전도사님, <어와나>가 뭔가요? “게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곳이에요!”



“전도사님, ‘어와나’가 뭔가요?” 어와나 담당 전도사로 4년차에 접어들게 된 2020년 2월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예~ 어와나(AWANA)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게임체육활동 + 복음 중심의 성경 핸드북 암송 + 견고한 하나님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말씀 나눔 + 매주 특별 시상식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예배이자 하나님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어와나는 미국의 아트 로하임(Art Rorheim)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어린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만든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어와나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 모든 담당자 및 교사들이라면 정기적으로 반드시 수료해야만 하는 어와나 BT교육을 받을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며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가슴 깊이, 그리고 가득히 담아오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다 보니 교사들, 부모님들, 어린이들 모두가 황금같은 주일 오후 시간을 모두 내려놓고 그 시간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음으로 기록한 결단을 하여 서로서로가 든든한 세겟줄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바이러스 공포가 있어도 어와나 출석율은 80%를 넘습니다. 이는 곧 어와나에 자녀들을 보내주시는 부모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대변해주는 결과입니다. 또 아이들의 어와나 예배를 향한 열정과 사랑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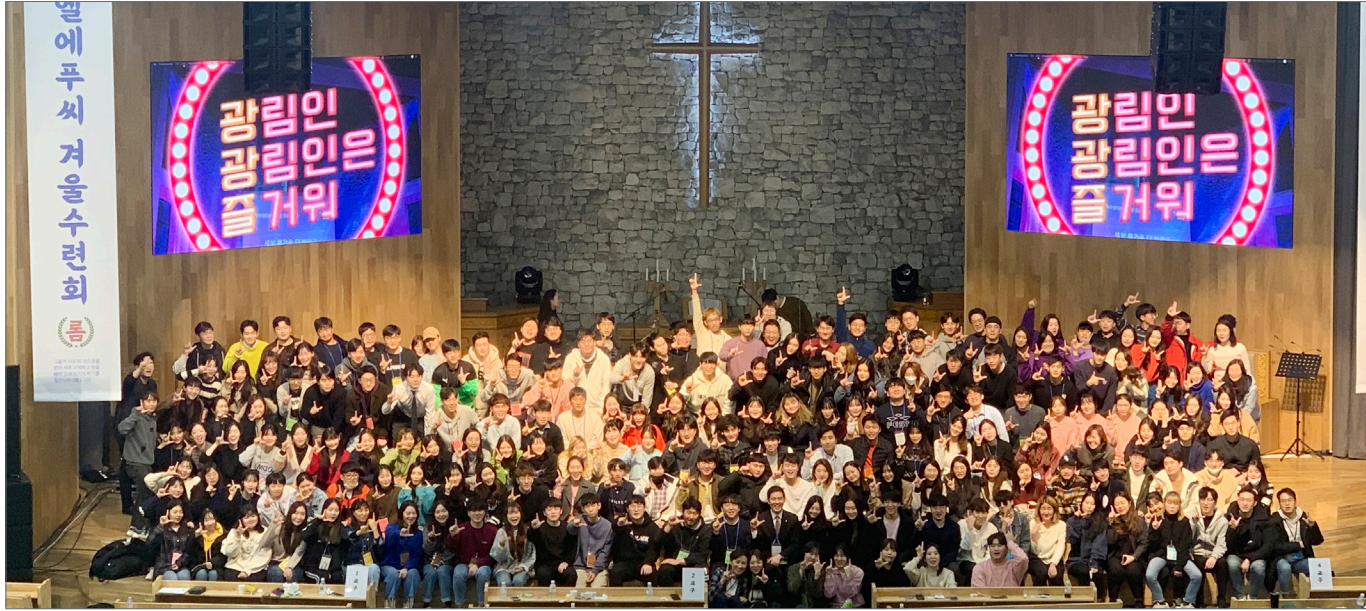
어와나 예배와 훈련에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게임에 임하고, 승패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또한 ‘말씀암송핸드북’을 즐겁게 암송하며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오늘도 저는 어와나 예배와 훈련에 다시 한 번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출동합니다. 단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자신이 노력하여 성취한 배지와 보석들을 자랑하며 제 눈을 바라봐줍니다. 마추한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마추치는 우리 어와나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을 함께 만납니다. 어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전유미 전도사(어와나)

# ‘Back to Basic(기본으로 돌아가라)’

1월 31일(금)~2월 2일(주일) 청년부 겨울수련회 광림수도원에서 열려



광림 청년부는 지난 1월 31일(금)부터 2월 2일(주일)까지 ‘Back to Basic(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주제로 광림수도원에서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은 아름답게 리모델링된 광림수도원에서 교회의 본질인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는 친교, 그리고 합심기도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한 국내선교팀은 청년부 김주송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사도행전 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를 토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즐겁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전달하여 주고자 ‘광림인, 광림인은 즐거워’라는 복고풍의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국내선교팀은 평소 청년부에서 경험하지 못한 <애장품 경매>, <달란트 잔치>, <디너쇼> 등을 기획했으며, 사전 물품 수집부터 수련회 당일 행사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수고한 결과, 모든 프로그램이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가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는 하정완 목사님(꿈이 있는 교회)과 김주송 목사님께

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고, 청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진심과 사랑을 담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구해야하는 등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내선교팀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청년들의 높은 질서 의식으로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승곤 성도(청년부 국내선교팀장)

## 유년부 겨울성경학교 ‘변화의 주인공’

‘요나 이야기’로 성경 공부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 보내



물고기 배 속 체험하며 신나고 은혜롭게 광림교회 교회학교 유년부(위원장 : 유선례 장로) <2020 겨울성경학교>가 열렸다. 유년부 겨울성경학교는 1월 31일(금) 오후 4시부터 2월 1일(토) 오후 7시까지 1박2일간 광림교회 교육관 4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되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가 진행되었고, ‘회개해요’, ‘변화된 요나’라는 제목으로 안신범 전도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기도회가 있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스스로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호영 목사를 비롯하여 안계현 목사, 최새힘 목사가 유치원에서 새롭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유년부 1학년 학생들과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교사들은 초등부실을 물고기 배 속처럼 꾸미고, 아이들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요나 이야기와 성경말씀을 공부하며 ‘예수님 사랑해요’, ‘회개시키기’, ‘물고기 배 속 체험’ 등

코스게임을 통해 요나서의 중심 키워드인 회개기도문 암송과 요나서 2장 4절의 변화 말씀 선포를 몸으로 즐겁게 익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유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우한 폐렴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행사나 모임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2월 7일(금)~9일(주일) 소년부 수련회와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는 취소되었다.

변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 신앙 간증

####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청년부 병원선교 팀장 박성중입니다. 처음 팀장이 되었을 때 제 자신이 팀장이라는 위치에 어울리는가 하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사역을 위해 세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로 임해야 했지만, 교만한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선교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흘러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참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들여다 보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제 안에서 교만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고, 주님의 뜻은 물이 스며들 듯 빠르게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저는 병원선교에 큰 뜻을 품은 채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병원에서 여의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숙담의 주인공이 된 제 자신의 후회를 만회하고자 선교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후회에 대한 만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계신 환우분들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은 제 고개를 들어주시어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에 큰 울림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후회에 대한 만회는 선물이 되었고, 베품과 헌신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제야 개인의 노력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선교의 주된 사역은 찬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환우분들을 도울 수는 없었지만, 찬양만으로도 지친 그들을 위로하고 심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의 부족한 찬양 속에서 힘겹게 미소를 띄어주고 계셨습니다. 안면근육을 움직이기 힘들어도, 인공산소를 들이마시면서도 말이죠. 그것은 몇 번이나 우리가 찬양을 이어가기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감복되어 당장이라도 쏟아져 나올 듯한 눈물을 참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찬양은 그들 앞에서 회개와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이 자리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35) 아멘.



박성중 성도(청년부)

“신규가입”

- 목회현장 -



박중섭 목사(광림북교회)

이제 봄이 다가오면 입학하게 됩니다. 새로운 곳을 향한 발걸음은 언제나 설레면서도 두려움이 묻어나게 됩니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는 시간도 그리하였습니다.

시간의 문턱에서 우리 광림교회에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우리 광림북교회에서도 성도님 한 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에 앞서 세례가 무엇인지 교육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중국분이셨고 남편이 한국인이어서 말이 약간 서툴렀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기껏 설명을 해주셔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설명한다고 웃으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옷 입고 계시죠? 그 옷을 입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자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옷이에요?"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이 어렵다 싶어서 대충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날이 되었는데도 그 분이 안 오시는 것입니다. "왜 안오세요?" 라고 묻자 "나(나) 어제 배트민터 너무 쳤어. 허리 아파 못 가." 그러는 것입니다. 광림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받다 허리가 아프면 강대상 앞에서 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정부에서 모시고 와서 끝까지 앉아서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세례 받은 이야기를 속회에서 나누는데, 아직까지도 세례를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성속회에서 세례를 다시 설명했는데, 핸드폰 어플을 찾더니 세례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규가입'**  
이 소리에 모두가 빵 터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세례는 신규가입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세례는 신규가입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신규 가입한 회원입니다. 단지 탈퇴가 없을 뿐입니다. 율한해도 하나님께 신규가입 하는 회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신입교사교육’ 및 ‘교사헌신예배’

- 광림남교회 -



**‘이것을 행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리라’**  
2020년을 맞이하며, 광림남교회 교육국에서는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9일에는 <신입교사교육> 과 <교사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부터 교사로 봉사하기로 결단한 교사들을 위해 열린 신입교사교육은 ‘이것을 행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리라’(딤후 4:15~16)는 말씀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신입교사교육은 신입교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공과공부, 심방, 돌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각 내용들을 잘 수행하

고 있는 기존 교사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신입 교사들에게는 어려웠던 교사의 역할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기존 교사들에게는 자신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한 신입교사는 “새롭게 하는 사역이기에 막막했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을지 실제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교사헌신예배에서는 모든 교육 교사들이 모여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헌신하기로 결단한 신입교사부터 각 부서를 담당하는 부장교사까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의미 있고 뜻 깊은 시

간이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교사들이 준비한 특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자신의 결단을 선포하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교사로서 가져야 할 지혜와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을 담당하는 유용찬 목사는 말씀을 통해 교사들의 결단을 격려하면서, 교사들이 가져야 할 헌신의 모습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과 헌신으로 새해를 열어나가는 민음의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한국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갈 광림남교회의 다음세대가 기대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교사들의 헌신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신호 전도사(광림남교회)

<전도결단세미나> 자연스럽게 복음 흘려보낼 방법 배워

- 광림서교회 -



**‘앞으로 광림서교회가 청라 지역과 세계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는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품게 돼.’**

2020년 복음의 사명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광림서교회에서는 구체적인 결단을 위한 특별한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9일(주일) 전교인 ‘전도결단세미나’를 통하여 올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생활화를 통해 하나

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이웃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라는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단체입니다.

주일 3부예배가 끝나고 중학생부터 어른까지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작은 부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열매들에 관하여 나누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를 진행해주신 고정민 이사장(평촌새중앙교회 장로)은 “광고를 활용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대해 같이 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이 여느 청년들 못지않은 열정이 느껴졌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뜨거움이 오히려 저희가 성도님들을 통해 도전받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광림서교회가 청라 지역과 세계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장선희 집사는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게 되어서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2020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영규 목사(광림서교회)

# 큰 은혜와 감동 경험한 <사랑의 연탄나눔>

전국 16개 지역 67개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35,700장 지원



1차 80여 명 청년들, 이천에서 직접 연탄 전달 광림 청년부는 이번 겨울 4주간 모금 행사를 진행하며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의 관심 속에서 약 3,5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고, 2개월에 걸쳐 전국 16개 지역, 67개의 저소득층 가정을 선정하여 35,700장의 연탄을 지원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1차로 80여 명의 청년들은 직접 경기도 이천 상용감리교회를 방문해 6,000장의 연탄을 10가정에 전달했고, 이어 29,700여 장의 연탄을 정선 선평감리교회 등에 순차적으로 보냈습니다. 청년들은 연탄을 나르고 운반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였으며,

연탄 한 장이 가져다주는 따스함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땀이 나고,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꼈지만, 연탄을 전달받는 분들의 미소와 웃음 속에서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나눔을 통해서 연탄을 전달받은 지역의 한 목회자는 "지역 사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울까를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번에 광림교회의 도움으로 큰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작은 교회라 많이 힘들 텐데, 어떻게 우리까지 도울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비록 저희도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웃으면서 답해드렸고, 금번 연탄 나누기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라며 광림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었던 이 땅과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온기가 이번 연탄나눔 행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방방곡곡으로 흘러가 생명의 열매가 맺히시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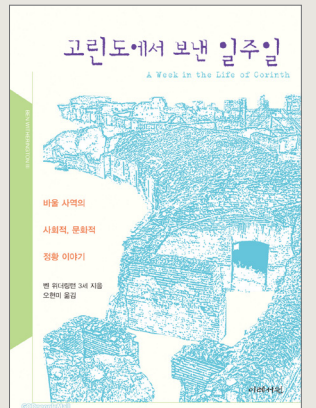
##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 [ 존 웨슬리의 미라클 ]

다니엘 R. 제닝스 지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존 웨슬리 사역에 큰 빛을 지고 있다. 존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본 사람은 집회와 사역에서 일어난 놀라운 영적 현상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다. 이 책에는 웨슬리의 일기에서 뽑아낸 '구신들림', '쓰러지는 현상', '거룩한 웃음', '황홀경', '꿈과 환상', '치유의 기적' 등 특이한 영적 현상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방언', '기적', '성령세례' 등에 대한 웨슬리의 의견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웨슬리가 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초자연적 현상은 교파를 초월하여 참된 부흥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줄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 ]

벤 위더링턴 3세 지음

엄격한 역사 고증과 흥미로운 스토리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재현한 책. 1세기 로마 식민지 고린도가 어떠한지, 곧 고린도교회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읽을 수 있다. 저자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얽힌 역사적 사실에 토대를 두고, 주인공 니가노르의 회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니가노르가 고린도에서 사업을 하고 여러 갈등을 겪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바울을 만나고 그곳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약성경 세계의 주요 지역인 고린도에서의 생활을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경험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 다음세대의 희망을 키워가는 <광림장학금>

3월 1일, 2020년 1학기 광림장학생(22기) 축하예배와 수여식



광림장학위원회(위원장 : 이동호 장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일 미래의 인재들에게 1998년부터 해마다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되며 학업과 봉사에 힘쓰는 믿음의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대학생을 선발해, 광림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2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림장학금>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광림교회의 비전이다. <2020년 1학기 광림장학생(22

기) 축하예배와 수여식>이 오는 3월 1일(주일) 저녁예배 때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총 37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5천 3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성적우수장학생 12명, 봉사우수장학생 14명, 감리교 미자립목회자자녀 장학생 11명의 장학생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성적우수장학생의 지원 자격은 광림교회 출석 가정의 대학생 중에서 1학년 1학기 이상을 마친 학생으로, 지난 학기 성적 평점이 B학점 이상인 학생들이며, 봉사우수장학생은 광림교회 각 부서의 봉사자

들 중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감으로 맡은 자리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학생들이다. 광림교회는 20년 동안 2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26억여 원을 지급했으며, 매년 1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학생들의 미래와 꿈을 응원하고 있다. 성도들이 동참하는 매월 <1만원 장학금>과 교구 장학위원들의 헌금은 장학제도 확대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장학위원회는 <개인명의 기념장학금>, <기업후원 장학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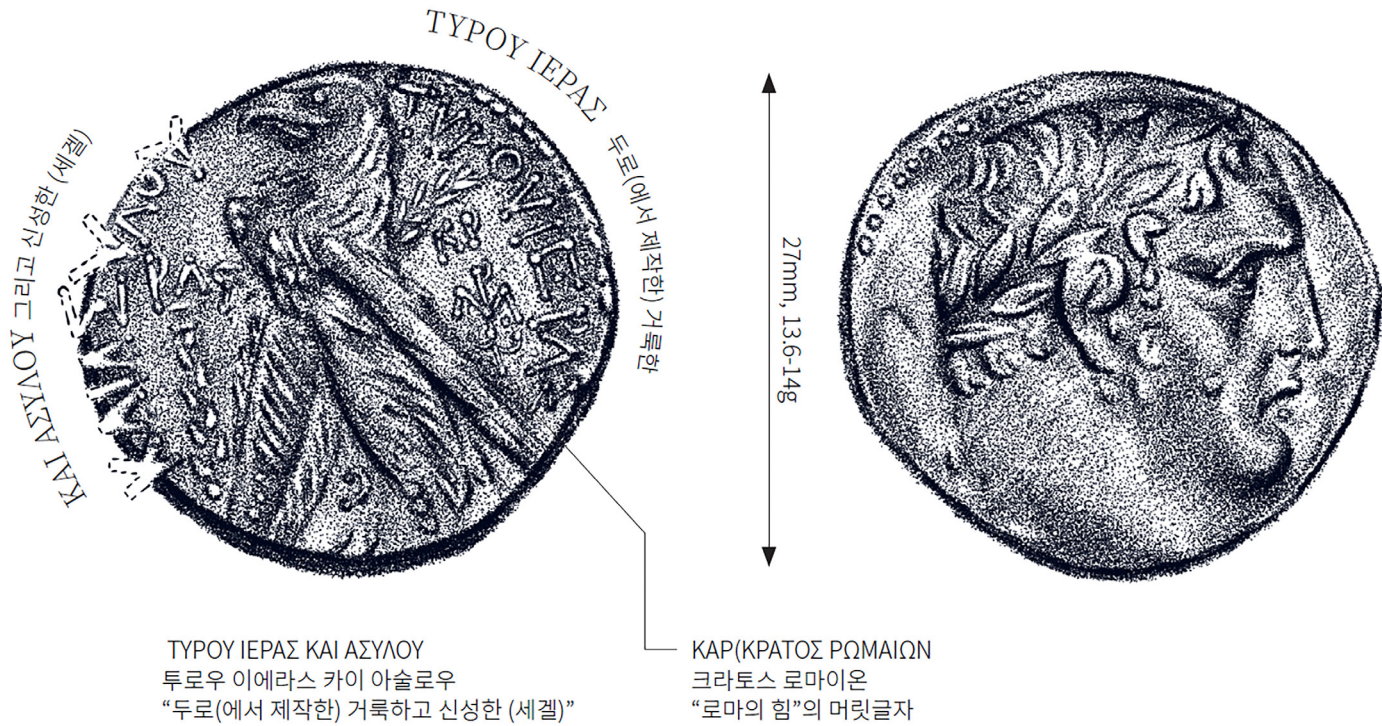
이동호 장로는 "광림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림교회 장학생은 하나님의 훌륭한 인재들이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꾼이 되어 받은 은혜를 이 나라와 사회에 돌려주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폭넓게 재원을 마련해 앞으로 대학생 뿐 아니라 유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도 장학금이 확대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9 성경의 화폐(2) 세겔(Shekel)



1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던 지역들에 부과된 세금이 절대로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와 수가 다르기는 했지만, 로마가 정복한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 100가지가 넘었다고 하니, 정복당한 민족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주 수입원은 전쟁을 통한 약탈과 세금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승리해서 얻게 되는 전리품은 승리하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을 테니, 일정하고 안정된 수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으로 유지되는 제국'이 로마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게는 중요했지만, 납세자인 시민들에게는 무거웠던 세금들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100가지가 넘는 세금에다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이들의 부패까지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세금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세금'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남자들은 20세부터 50세까지 의무적으로 내야했고, 여자들은 3세에서 62세까지 내야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세금을 내야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마태복음 5장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는 이

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이 가르침이 바로 세금에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매정하게 등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부여하는 세금과 함께 유대 땅에는 종교 세금도 있었습니다. 성전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전세는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지역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그가 사는 곳이 유대이든, 아니면 로마이든 유대교인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전세는 로마의 세금과는 달리 내야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을 뿐,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릇된 제의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 콰란의 종파는 성전세를 내는 것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였고, 그 외에도 성전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을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시려던 세금이 로마에 내는 세금인지, 아니면 성전에 내는 성전세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에 많은 성경 책들은 표제어로 "성전세를 내시다"라고 표제어를 달아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보건데, 당시 세금은 1인에 반세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에 낚시를 던져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의 입 속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라며, 베드로와 예수님의 뜻으로 그 한 세겔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물고기의 입에서 꺼낸 한 세겔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헤롯 이전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유대와 그 주변의 지역들에서 널리 통용되던 세겔은 '두로의 세겔'(Shekel of Tyre)입니다. 지중해 변의 두로 지역에서 주조된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동편의 레반트 지역에서 통용될 화폐를 제조하는 지역으로 두로를 선정하였고, 그 지역에서 제조된 화폐에는 그 지역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일종의 화폐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제조된 화폐에는 TYPOY IEPAΣ ΚΑΙ ΑΣΥΛΟΥ (투로우 이에라스 카이 아솔로우, '두로(에서 제작한) 거룩하고 신성한 (세

겔')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시대에 와서는 성전건축(20/19BCE)과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화폐를 제작하게 됩니다. 일종의 '두로 조폐공사 예루살렘 지청'을 만든 셈입니다. 이것은 헤롯의 외교력의 승리였습니다. 화폐 제조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두로 조폐공사의 지청이었기 때문에 두로에서 제작한 화폐의 모양을 그대로 차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지청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해 두어야했으므로 헤롯은 ΚΑΡ(ΚΡΑΤΟΣ ΡΩΜΑΙΩΝ) 크라토스 로마이온 '로마의 힘'이라는 글자의 머릿글자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두로의 세겔처럼 그리스-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를 새겨 넣었습니다.

두로에서 만든 세겔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만든 세겔이 그 형태가 조금은 영성하고 불순물도 조금 더 많이 섞여 있어서 '조잡한 세겔'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19/18BCE부터 66CE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서 '헤롯의 세겔'(Herodian Shekel)이라고 불리는 이 화폐는 널리 사용되었고, 아마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입에서도 이런 모양의 세겔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사진설명

1 성경의 화폐(2) 세겔(Shekel)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